

DJ, 정부 비판 발언 정치권 ‘후폭풍’

여·보수 진영 “전형적 선전선동” 맹비난속 파장 주시 민주당 “오죽했으면...” 정세균號 불신 불통 될 수도

지난달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3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북정책이 시대착오적 냉전회귀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2 환란이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심대한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시민세력의 연합전선 구축을 주장했다.

DJ의 강력한 주문은 그가 마치 한국정치 최전선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파장은 우선 보수진영에 퍼졌다. 정무여당 및 보수진영은 DJ 발언을 “전형적 선전선동”이라 맹비난하면서 그의 발언이 불고을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라는 것도 보수진영을 더욱 긴장시킨다. 하지만 긴장감은 민주당이 더 한 편이다.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비교적 말을 아꼈던 DJ였기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전면에

나섰을까 하는 소리가 당 내부에서 들리고 있다. 그 여파로 당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DJ의 비판 발언이 알려지면서 즉각 태도를 바꿨다. 특히 야3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선선 구축을 선언, 보수진영에 맞선 연합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DJ의 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현 정세균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DJ는 반(反)이명박 전선 구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들에 대해 “그에 앞서 지지율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지지율에 허덕이는 ‘정세균호’에 대한 꾸밈음으로도 풀이된다.

때문에 DJ의 질타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정세균 불신임 기류를 급속히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현 민주당에 남아있는 ‘노무현’ 그림자가 급속히 지워지면서 DJ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한 한나라당을 거듭 비판하며 김 전 대통령 고인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염려에서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인을 무례하게 비난한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아무런 대책, 전략도 없이 실용이라는 허울에 갇힌 싹담인가”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국회 보면 답답하다”

해외순방중 ‘예산안·법안 처리 지연’ 심경 토로

3일 여야 대표 초청 회동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해외순방 기간 정기국회의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 대해 국회 상황을 수차례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법안 등의 처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나”며 “예산안이나 법안들이 시원스럽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는 게 안 의원의 전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가지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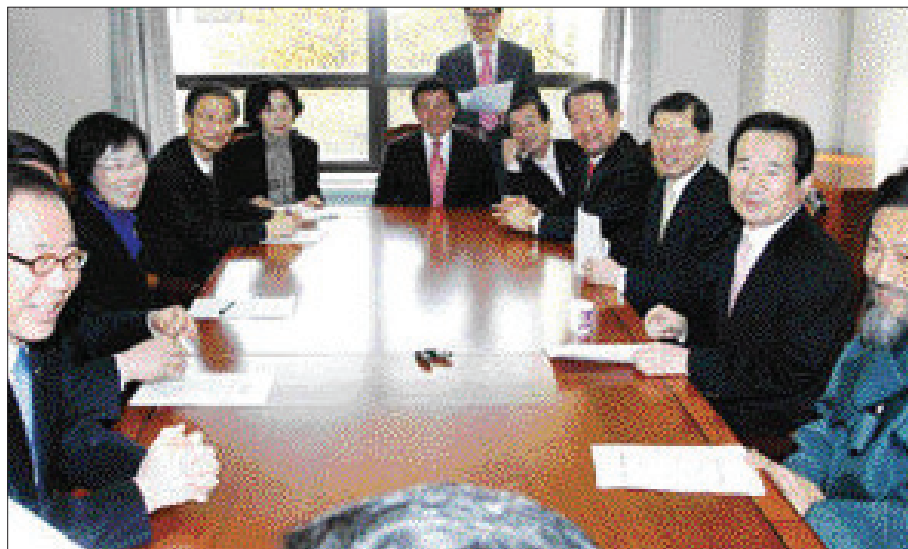
역할을 당부했다.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력 총결집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극복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줘야 할 국회가 정작 갈등만 반복하며 예산안 및 법안 심의라는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대한 하소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 ‘시계 제로(0)’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12월9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 이후 임시국회에서의 정정 법안 처리’라는 시간표를 정해 놓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력 저지에 나설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연말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대북강경정책 수정해야”

野 3당 대표 회동 ‘대북정책 공조’ 결의문 채택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회동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발 3000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보수단체의 대북배라 문제는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보혁 갈등을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범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 출범 ▲인도적 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야3당은 향후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공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개정, 보수단체의 배라 발송을 제한한 남북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3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앞서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의 입법작업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연대활동 모색 ▲개성공단을 살리는 ‘초당 모인’ 결성 등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남북 통행시간대 대폭 감축

12·1 조치 첫날...개성공단 인력 감축 조율 마무리단계

북한이 예고한 ‘12·1 조치’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 9,10,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 과 차량도 250명과 150대 이하(종전 500명·200대 이하)로 감축된다. 또 일경 횟수도 오후 3,4,5시 등 하루 3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일경 가능 인원 및 차량 수도 같은 폭으로 감소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례씩 각각 출·입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1차례씩만 오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1일부터 원칙적으

로 차단된다. 이미 지난달 28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인력이 철수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 무소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2·1 조치’의 하나인 개성공단 남측 인력 감축과 관련한 남북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행 제한·차단 시행은 미뤄질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약 1천700명에 대해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에 상주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남북 실무 당국 간에 사실상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현재 평양 당국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sung Shinhyang Education Institute (대수생 신명학습원) featur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and a list of staff members.

Advertisement for Sunsaan Air Travel (쑤니산항공관광여행사) promoting a winter vacation package with prices for different groups.

Advertisement for Sunsaan Air Travel (쑤니산항공관광여행사) detailing insurance services and a table of travel packages.